

작가별 낙찰총액으로는 2015년에도 김환기가 1위였지만 금액 면에선 전년 약 100억원에서 24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음으로 정상화(157억원), 이우환(117억원), 박서보(110억원) 등의 순이었다. 30위에 들어간 작가 중 김환기와 단색화가인 정상화·이우환·박서보 등의 낙찰총액을 더하면 5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음악

대중가요

■ 개요

2015년 가요계는 신구 세대 가수가 컴백하며 어느 해보다 풍성한 한해였다. 세월호 참사로 앨범과 공연 일정이 취소되며 침체했던 지난해에 비해 활기를 되찾았다.

이문세를 필두로 박진영, 이승환, 이승철, 임창정, 신승훈 등 1980~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대거 새 앨범으로 돌아와 '중견'의 저력을 보여줬다. 새해 벽두부터 MBC TV '무한도전'의 영향으로 1990년대 가수들이 재조명됐으며, 하반기 M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열풍으로 1980년대 음악이 음원차트에 진입해 시대를 넘나들며 복고 바람이 두드러졌다.

음원과 음반 판매량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보여준 가수들도 있었다. 빅뱅은 6장의 싱글을 잇달아 내며 음원차트 정상을 장악해 '음원 킹', 엑소는 정규 2집으로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하며 1집에 이어 더블 밀리언셀러를 기록해 '음반 킹'의 면모를 과시했다.

장르적으로는 힙합의 강세가 계속됐다. 엠넷 '쇼미더머니'와 '언프리티 랩스타' 등의 힙합 프로그램이 사랑받았고 지코, 산이 등 래퍼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음원 사재기' 논란이 3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며 어두운 이면을 드러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이 13년 만에 사죄하며 한국행을 호소했다가 비난받은 반면, 동방신기와 JYJ·슈퍼주니어 등 2세대 아이돌 스타들은 대거 입대했다.

■ 신구 세대 조화...선배들 활약 속 빅뱅은 '음원'·엑소는 '앨범' 강자

2015년 음원차트는 대표급 아이돌 가수들의 활약과 레전드급 선배 가수들의 컴백으로 정상 다툼이 치열했다.

빅뱅은 5~8월 싱글 6장 잇달아 내 음원차트 정상을 올라 여름 시장을 장악하며 '음원 킹'의 면모를 입증했다. '루저'(Loser)와 '베베'(Bae Bae), '뱅뱅뱅', '이프 유'(IF YOU), '맨정신' 등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아이튠즈 차트와 중국 차트에서도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음원 쏘개기' 전략은 음악 시장이 CD에서 음원으로, 음원 시장 역시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소비 주기가 짧아지는 현상이 가속화된 흐름에서 효과를 봤다.

엑소는 2013년 정규 1집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데 이어 정규 2집으로 다시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하며 막강한 팬덤을 자랑했다. 2집 '엑소더스'(EXODUS)가 75만3천860장, 2집 리패키지 앨범 '러브 미 라이트'(LOVE ME RIGHT)가 37만1천160장이 팔려 총 112만5천20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정규앨범 모두를 밀리언셀러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줬다.



▲ 12월 30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5 KBS 가요대축제'에서 그룹 엑소(EXO)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8인조로 재편한 소녀시대, 4인조로 재편해 3년 만에 밴드로 돌아온 원더걸스, '여름 강자' 씨스타, 상승세를 탄 AOA 등 걸 그룹들도 6~8월 대거 컴백해 흐름을 형성했다. 그중 씨스타는 '여름 강자'란 수식어답게 차트 1위를 석권했고, 원더걸스는 3년 만에 컴백·멤버 재편·밴드 변신 등으로 화제성이란 측면에서 성공했다.

과거에 멈춰 있지 않겠다는 1980~90년대 선배 가수들도 어느 때보다 좋은 성적을 냈다.

이문세는 13년 만에 낸 15집 신곡 '봄바람'으로 음원차트 1위에 올랐고, 박진영도 '어머님이 누구니'로 차트 정상을 경험했다. 임창정은 '또다시 사랑'으로 1위를 수성하며 3개월간 '롱런'했다.

신구 세대의 허리급 가수인 싸이도 3년 5개월 만의 정규 앨범인 7집을 내고 더블 타이틀곡 '나팔바치'와 '대디'로 국내 차트를 '울킴'했다. 또 '대디'가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인 '핫 100'에 97위로 진입해 싸이는 '강남스타일'과 '젠틀맨', '행오버'에 이어 아시아 가수 최초로 4곡 연속 빌보드 메인차트에 오르는 월드스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 방송 타고 8090 복고 열풍·계속된 힙합 강세

방송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복고 바람도 강하게 불었다.

2015년 초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에서 S.E.S, 지누션, 터보 등 1990년대 가수들의 노래가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차트에 재진입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급기야 이들 가수의 합동 공연이 열렸고, 당시 가수들의 컴백으로 이어졌다.

지누션은 4월 11년 만의 신곡 '한 번 더 말해줘'를 선보였고, 터보도 12월 김종국, 김경남, 마이키 등 역대 멤버가 뭉쳐 3인조로 새 앨범 '어게인'(Again)을 발표하며 15년 만에 컴백했다.

연말에는 ‘응답하라 1988’의 신드롬 속에 1980년대 음악이 소환됐다. 드라마에 이문세, 이선희, 소파차 등 1980년대 인기 곡이 대거 삽입곡으로 쓰였고, 음원차트에는 오혁이 부른 이문세의 ‘소녀’(1985)가 1위, 박보람이 부른 동물원의 ‘해화동’(1988)이 2위에 오르는 등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곡이 큰 사랑을 받았다.

2년 전부터 강세인 힙합은 2015년에도 믿고 듣는 장르였다. 엠넷에서 잇달아 방송한 ‘쇼미더머니’와 ‘언프리티 랩스타’의 화제로 출연 래퍼들의 곡이 주목받았으며 산이, 지코, 다이아믹듀오 등의 래퍼들이 음원 파워를 보여줬다. 또 자이언티와 크러쉬 등 알앤비·술 뮤지션들도 음원 강자로 떠올랐다.

■ 재점화된 음원 사재기 의혹…유승준 등 논란·바비킴 등 사건사고

화려한 이면에는 음원 사재기 의혹이 도사렸다.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 사재기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수상한 아이디가 무더기로 발견돼 가요계가 술렁였다. 수상한 아이디는 특정 가수들의 음악을 선호해 몇몇 가수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음원차트 정책위원회’를 운영해 사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해결점은 찾지 못했다. 이와 맞물려 추천곡 제도가 차트를 왜곡한다는 지적도 다시 일자 엠넷닷컴, 벅스, 지니 등의 음원사이트는 폐지를 선언했다.

논란에 휩싸인 가수들도 있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은 13년이 흐른 2015년 5월 두 차례의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사죄하며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이어 그는 9월 주LA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다시 비난에 직면했다.

반면 2세대 아이돌은 2015년에 대거 입대했다. 동방신기의 유노윤호·최강창민을 비롯해 JYJ의 김재중·박유천, 슈퍼주니어의 은혁과 동해·최시원, SS501 출신 김현중 등이 군 복무를 시작했다.

아이유는 직접 작사한 노래 ‘제제’가 소설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속 어린 주인공을 성적으로 해석했다는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아이유가 5세 아이를 성적 대상화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혔지만 이 논란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에도 금기가 존재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논객들의 설전으로 이어졌다.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1월 바비킴이 항공사의 발권 실수로 미국행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 태진아가 3월 미국의 한 한인 매체의 보도로 ‘억대 원정 도박설’에 휩싸이자 기자회견을 열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했다.

‘엔카의 여왕’ 계은숙은 11월 상습 마약 투약과 사기 혐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계은숙은 2014년 32년 만에 국내 활동에 나서며 “당뇨와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고령의 어

머니에게 한국에서 다시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의지를 보인 터라 안타까움을 줬다.

한편, 2월에는 ‘한국의 바비 달린’으로 불린 1960년대 가수 겸 방송인 위키리가 미국에서 별세했다.

클래식 · 국악

■ 개요

2015년은 한국 클래식 음악의 저력을 세계에 떨친 한해였다. 폴란드 쇼팽 피아노 콩쿠르,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등 세계 3대 음악 콩쿠르 가운데 2개 대회에서 한국인 첫 우승자가 나오는 등 한국 클래식 음악 역사상 유례없는 낭보가 잇따랐다.

한국의 대표 오케스트라인 서울시립교향악단도 세계적 권위의 음반상을 받는 등 선전했다. 하지만, 10년간 서울시향의 성장을 이끈 정명훈 예술감독이 사임하는 등 안팎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시험대에 놓였다.

■ 세계적 무대 휩쓴 한국 클래식 연주자들

세계 3대 음악 콩쿠르로 꼽히는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 폴란드 쇼팽 피아노 콩쿠르,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가운데 2개 대회에서 한국인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5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스무 살 임지영이 바이올린 부문에서 우승한 데 이어, 10월에는 스물한 살의 조성진이 쇼팽 피아노 콩쿠르 우승 소식을 전해왔다. 두 사람 모두 한국인 으로서는 첫 우승이었다.

9월에는 문지영이 이탈리아에서 열린 ‘60회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세 사람 모두 한국에서 기본기를 다졌거나 국외 유학 경험이 없는 국내파라는 점에서 한국 클래식 음악 교육과 연주자들의 성장, 세계적 수준의 기량을 입증한 쾌거라는 평가가 나왔다.



▲ 폴란드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11월 18일 주일본 폴란드대사관에서 한국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더욱이 조성진은 우승과 함께 유례없이 뜨거운 대중적 관심을 받으며 '조성진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조성진의 공쿠르 연주 실황음반은 주요 온라인 음반 사이트에서 예약 판매만으로 유명 가수들의 음반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고, 발매 첫날에는 음반을 먼저 사려고 판매점 앞에는 번호표를 받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일반적 클래식 음반의 20배 규모인 5만 장이 발매 1주일 만에 매진됐다. 조성진의 인기는 클래식 음악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각종 음반 판매 사이트에서 클래식 음반과 DVD의 판매가 급증했다.

■ 서울시향, 국제적 음반상 성과··정명훈 예술감독 사임

서울시향은 2014년 도이치 그라모폰(DG)을 통해 발매된 정명훈 예술감독의 지휘로 작곡가 진은숙의 작품을 연주한 음반 '진은숙: 3개의 협주곡'으로 2015년 3월 '국제클래식음악상(ICMA)'을 받은 데 이어 4월에는 한국 오케스트라, 아시아 작곡가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BBC 뮤직 매거진상'을 받으며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8월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클래식 음반상인 영국 '그라모폰상(Gramophone Award)'의 현대음악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9월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베이징 국가대극원 초청 공연으로 아시아 최대 클래식 시장으로 성장 중인 중국 무대 진출에 본격적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중국에서 한·중 교류 차원의 초청 공연을 한 적은 있었지만, 서울시향의 이름과 음악을 내걸고 전석 유료 판매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10월에는 일본 최고의 공연장 산토리홀 초청으로 무대에 섰다. 이 공연은 산토리홀이 세계에서 활약하는 음악가 가운데 한 명을 선정해 한 주 동안 집중 조명하는 '산토리홀 특별무대'의 하나였다.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정 예술감독의 음악 세계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이처럼 국내를 넘어 국제무대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지만, 2014년 말 불거진 박헌정 전 대표의 성희롱·막말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당시 박 전 대표가 예술감독인 정 지휘자의 연봉과 처우 등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정 지휘자의 개인 윤리 문제로 번지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3월 일부 시민단체는 정 지휘자가 항공권 부정 사용 등을 통해 업무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이러한 가운데 정 예술감독이 8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향 예술감독직을 내려놓겠다", "재계약 서류에 사인하지 않겠다"며 음악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2015년 말로 예고된 정 예술감독의 재계약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후 정 예술감독은 서울시향과 서울시의 설득 끝에 다시 한 번 예술감독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약안 의결을 위한 서울시향 이사회를 하루 앞둔 12월 27일 정 감독의 부인 구모 씨가 박헌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서울시향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고, 28일 이사회에서 재계약안이 보류되자 정 예술감독은 29일 결국 다시 사의를 밝혔다.

정 예술감독은 2016년 예정된 서울시향 지휘 일정도 모두 취소하고 서울시향을 떠났다.



▲ 정명훈 예술감독이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일본 도쿄도(東京都) 분카무라 오차드홀에서 12월 26일 열린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합동콘서트 리허설에서 지휘하고 있다.

■ 독일 지휘 거장 쿠르트 마주어 타계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쿠르트 마주어가 12일 19일 향년 88세로 타계했다. 마주어는 독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를 26년간 지휘했고,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뉴욕 필하모닉 음악감독을 지냈다.

■ '국악 대중화' 노력 계속··'세계화' 시도도

국악 대중화를 위한 노력은 2015년에도 계속됐다.

국립국악원은 '국악 진흥을 위한 제2의 개원'을 선언하고 여러 세대와 다양한 취향의 관객을 아우를 수 있는 공연을 강화했다. '유모차 음악회' 등 '미래 관객'인 아동,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대중음악 등 다른 장르와의 협업 공연, '퓨전국악' 등 젊은 국악인들을 위한 무대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4년 대비 160% 이상 공연 횟수가 증가했고, 자연음향 공연장인 풍류사랑방은 객석 점유율 94.1%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2010년 이후 6년째 이어온 '여우락(樂) 페스티벌'로 국악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국립극장은 세계를 사로잡은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을 '여우락' 예술감독으로 영입해 국악 대중화를 넘어 세계화로 가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이자 유네스코 등재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인 '중요제례악'도 9월 프랑스 파리 국립사이오극장 무대에 올라 한국전통예술의 정수를 세계에 알렸다.